

Since 1960

(주)헤인은

Caterpillar 건설장비/발전기/해상엔진/지게차,
Ingersoll-Rand 콤프레사/타이탄, 융하인리히 물류장비,
Terex 도로장비 등 모든 산업현장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헤인은

종합건설장비 산업의 Leading Company로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www.haein.com

2005 | W I N T E R |

헤인



특

거울과 창, 당신의 눈은 맑은가?

Special Theme Human Body ; eye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울

현재를 반추하고 나아가는 시야로서의 창

푸석한 삶의 먼지로

어느새 탁해진 시력을 조정하자.

반듯하게 닦인 깨끗한 거울로

미래를 보여주는 탁 트인 창으로

다시 바라보기를 해야할 때.

03 프롤로그 | 04 테마 이야기 | 06 테마 인터뷰 | 09 테마 백과사전
10 헤인 동서남북 | 14 高客古客 | 16 Here is Haein | 18 업계는 지금 | 22 최고의 장비
24 헤인 뉴스 | 26 독자 나눔터 | 24 생활의 발견

표지 설명 : 백석공영 최성호 과장과 (주)헤인 김수열 대리가 캐터필라 월로더에 올라 활짝 웃고 있다.

2005년 겨울호(통권 250호) | 2005년 12월 26일 발행 | 1993년 10월 20일 등록(등록번호 바-2006호) | 발행 겸 편집인 원경희 | 발행처 주식회사 헤인 (www.

haein.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헤인빌딩(02-3498-4500) | 기획 및 디자인 편집 디자인실 외곽(02-3447-7601) | 인쇄 대로인쇄(02-2278-0773)



형형(炯炯)한 눈빛을 가진 사람은 아름답다. 신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곧아야만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밝히는 형형한 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눈은 그래서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한번에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하곤 한다. 마음을 보여주고, 세상을 보여주는 눈 이야기를 시작해 본다.

글. 이원복(칼럼니스트), 일러스트레이션. 유창운

●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말이다. 이것은 눈으로 본 것은 사실이라는 암묵적인 명제가 성립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는 곧잘 눈으로 확인하고도 엉뚱한 결과를 낳는 사람들에게 눈은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면박을 주곤 한다.

눈으로 본다는 말을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가시광선을 시세포로 받아들여 뇌에서 그 빛들의 차이를 영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작업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같은 색깔을 조금 다르게 말하기도 하고, 같은 모양을 차이 나게 설명하고는 한다. 즉, 눈으로 보는 것은 이미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주관적으로 보고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아직도 고개를 가우뉘거리시는 분이라면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좋다고 나쁘다고, 예쁘다고 밋다로 갈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사물이 예쁘고, 밋게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예쁘고 밋게 보는 것일 뿐인데 말이다. 당신의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 당신이 본 것을 사실이라고 우기면 곤란하다. 사실은 언제나 다른 곳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 마음의 눈으로 보라

흔히 '내 눈은 2.0이야', 저 양궁 선수는 양쪽 시력이 2.5에 가깝습니다'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밤하늘 별의 수가 겨우 3,000~4,000개 정도인데 건너편 간판의 글자가 확실하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로 눈의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면 독수리를 비롯한 다른 동물들이 들으면 그야말로 하품 나는 소리이다. 왜냐하면 독수리의 시력은 5.0이기 때문이다. 눈 속에 초점을 맺어주는 황반부를 두 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력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사람도 간혹 이 같은 시력을 얻을 수는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은 늘 멀고 넓은 곳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6.0의 시력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예에 불과하다. 그러나 눈이 나쁘다고 해서 꼭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눈이 나쁘기 때문에 사물을 더 오래, 그리고 깊이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력이 나쁜 사람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물체를 들여다 볼 때 안경까지 벗고, 오래도록 꼼꼼하게 살펴보는 경

우를 자주 볼 것이다. 그것은 눈으로 본 것을 마음에 오래도록 담아 놓기 위해 오래도록 꼼꼼하게 물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마음으로 보라. 독수리의 눈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당신의 마음에 남아 있을 것이다.

● 여자들의 눈이 눈썹 위에 달린 이유

눈썹 위에 눈이 달린 여자들은 시집가기 어렵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이다. 여자들은 눈썹 위에 눈이 달려야 한다. 남자의 품성, 남자의 능력, 남자의 집안, 남자의 경제적 능력까지 모두 꼼꼼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자들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율이 0% 대에 머물게 된다. 결혼 전에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을 유지했어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임신한 여성들은 누군가 옆에서 영양가 있는 음식과 안전한 보금자리를 보장해줘야만 한다. 그런데 만약 남자들이 술이나 마시고, 경제적인 능력을 높이는 데 무관심하다면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여자 입장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까? 물론 최근에는 여자의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위치가 많이 개선됐지만, 끝까지 외면할 수 없는 신체적인 구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이다.

여자들이여! 눈을 눈썹 위로 올려서 간간하고, 까다롭게 남자를 골라라! 세상을 보는 눈높이도 더 올려라! 당신들의 조언을 목숨처럼 알고 사는 남자들이 세상의 눈높이를 한결 높여줄 것이다.

● 아름다움을 보는 안목

파스칼은 문학을 종이칼과 같다고 말했다. 칼은 칼인데 아무짝도 쓸모없는 칼이라는 말일테다. 그러나 종이에 베인 상처가 얼마나 깊게, 또 오래 가는지 아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한 줄의 시에 담겨져 있는 깊은 감성과 한 폭의 그림에 담겨져 있는 인생의 아름다움, 그리고 한 소절의 음악에 깊이 공감할 수 있다면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혹시 '난 책 구입하는 게 제일 돈 아까워'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다니지는 않는지? 책과 음악과 영화와 미술에 관심을 가져라. 예술을 대하는 당신의 눈높이가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당신 인생의 눈높이도 높아질 것이다.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어떤 일의 시작과 끝을 의미할 만큼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눈의 고마움을 잊은 채 '본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긴다. 누구보다 눈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눈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본다.

글과 사진 / PAS(help@i-pas.com)

음악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 전 제 덕



생후 보름 만에 찾아온 원인 모를 열병으로 인해 시력을 잃은 한 아이가 있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소년은 국내에서는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재즈 하모니카 연주가로 자라 자신이 보지 못한 세상을 악보 위에 그려가고 있다. 세상을 한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무엇이라는 질문에 자신의 얼굴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스티비 윈더가 자신의 딸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거액을 들여 개안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수술은 실패를 했죠. 저는 만일 세상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저의 얼굴을 가장 먼저 보고 싶네요.”



30여 년을 그저 손의 촉각으로만 자신의 얼굴을 느끼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늘 궁금했다는 전제덕 씨. 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첫 독집 앨범인 하모니카 연주 음반을 발표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올해 3월에는 서울 삼성동 백암아트홀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그래도 잘 모른다면 아마 통신업체 광고를 떠올리면 그를 기억하기 쉬울지도 모르겠다. 직접 하모니카로 연주한 '마이웨이'를 배경으로 '세상은 그의 장 애만 보았지만, 인터넷은 그의 재능을 보았습니다'라며 희망을 이야기 하는 중심에 그가 있었다. 그 광고가 나간 이후 전제덕씨는 '한국의 스티비 윈더'라는 별명까지 생겼다고 한다.

● 때론 작은 하모니카가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난 뒤, 7살이 되던 해 시각장애자 특수학교인 인천 해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교내 브라스밴드에서 북을 연주하며 음악과 처음 만났다.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브라스밴드가 해체되면서 사물놀이에 입문, 장구채를 잡기도 했다. 그런 그가 하모니카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다.

“96년쯤으로 기억해요. 택시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어떤 곡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하모니카 소리도 이렇게 여유 있고 따뜻할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모니카의 새로운 발견이었죠. 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모니카를 연주해보아겠다는 생각이 시작되었으니까.”

하모니카를 처음 손에 쥐던 날은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 왔다.

“하모니카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어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하모니카 연주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제가 처음 하모니카를 시작할 때만 해도 하모니카 연주하는 사람이 드물었을 뿐 아니라, 더군다나 제가 하고 싶었던 재즈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사람은 아예 없었으니까요.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고 악보도 구할 수 없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무조건 음악을 듣고 따라 하는 것입니다.”

청음 훈련을 오래한 덕분에 그는 요즘도 웬만한 음악은 따로 악보를 보지 않아도 들으면 바로 연주까지 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을 궁금해 하지 않는다. 그보다 자신이 연주하는 곡이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궁금할 뿐이다. 사람들이 보는 걸 그는 볼 수 없지만 그가 느끼는 세상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의 들숨과 날숨이 교차하는 하모니카의 작은 구멍들은 세상과 사람들과 만나는 유일한 통로이다.

빛을 찾는 안과병원 ;

실로암안과병원

어느 추운 겨울 아침, 섬 지역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갓난아기를 업고 실로암안과병원을 찾아왔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기의 눈에는 눈곱이 심하게 끼어 있었고, 눈은 벌겋게 충혈이 되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들은 막무가내식 민간치료의 현실이었다. 아이의 상태가 악화되자 동네에서 무면허로 침을 놓는 할아버지를 찾아갔더라. 그 할아버지의 처방은 소변을 하루에 세 번씩 받아 아기의 눈에 넣고 씻어 주라는 것이었다. 그 결과 아기는 몇 개월 후 뇌성마비 증상까지 오고야 말았다. 아기의 병은 결막염이었다. 현재 실로암안과병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김선태 목사는 이런 사정을 딱하게 여겼고, 농촌과 섬 등의 벽지에 무료 안과진료를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백방으로 수소문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SBS 서울방송 문화재단이 9인승 밴 차량을 기증해주었고 이것이 '움직이는 안과병원'의 시초가 되었다. 그 후 1996년 자매결연을 맺은 삼성SDI로부터 46인승 대형 리무진 버스를 기증받아 병원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어둠을 물리치는 힘

올해로 개원 20주년을 맞이한 실로암안과병원은 그동안 셀 수 없이 수많은 환자들에게 최초의 설립 이념에 따라 무료 안과 진료 및 개안수술로서 밝은 빛을 찾아주었다. 2004년에는 전국 방방곡곡과 해외에서 총 1만 2,334명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했고, 시각장애인 1,136명에게 개안수술을 실시하였다. 올해는 총 42회에 걸쳐 이동진료를 나갔고, 이동진료소에서만 9,220명이 무료진료의 혜택을 받았으며, 255명이 이동진료차량에서 시술되는 개안수술을 통해 시력을 되찾았다고 한다.

실로암안과병원에서 추진하는 의료 사업은 국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1987년 방글라데시에 의료 봉사단을 파견하였고, 이후 1991년 중국 연변에 1차 이동진료반 파견, 1994년에 필리핀 바기오 지역 원주민들을 위한 이동진료반을 파견했다. 1997년에는 중국 연변대학 복지병원에 2차 이동진료반을 파견하여 조선족 및 한족들에게 무료 진료와 개안수술을 실시했으며, 1999년에는 중국 현지에서 실로암 안과센터를 개원하였다. 현재 실로암안과병원에서 개안수술을 할 경우, 환자의 부담 비용은 30만원. 나머지 비용 마련을 위해 실로암안과병원에서는 '1인 1명 수술해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고, 어렵게 모인 돈은 수술시 시력이 더 좋아지도록 삽입하는 인공수정체와 재료비, 마취비 등의 비용으로 쓰이며, 수술비는 모두 병원이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내외를 아우르며 진료에 나서는 것은 모두 치료가 필요하다면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환자들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실로암안과병원의 생각 때문이다. 그 생각의 아름다움 때문이라도 우리 주위의 어둠이 조금씩 거치는 지도 모르겠다.

세상을 보는 눈, 건강관리법 ;

몸이 만 냥이면 눈이 구천 냥이라는 속담도 있듯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고, 눈이 성치 못하면 온 몸이 어두운 법. 마음까지 비추주는 눈 건강 관리법을 알아보자.

비타민이 풍부한 야채·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라__비타민A가 부족하면 야맹증, 비타민C가 결핍되면 백내장 등이 초래된다. 비타민A는 토마토, 고구마, 해바라기, 효모, 해산물, 간유뿐 아니라 시금치, 겨자 잎, 파슬리 등의 푸른 잎채소에도 들어있다.

40세 이후 1년에 한 번씩 안압 검사를 받는다__녹내장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녹내장은 주로 나이가 많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빈혈이 심하고 근시인 사람이 발병 위험이 높다. 녹내장으로 일단 나빠진 시력과 좁아진 시야는 회복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당뇨, 고혈압 환자들도 1년에 한 번씩 안과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1시간에 10분은 쉬게 한다__근거리 작업을 할 때에는 정기적인 휴식을 취해야 한다. 컴퓨터 작업이나 독서 등에는 1시간마다 10~15분 정도 눈을 쉬도록 한다. 컴퓨터는 하루 5시간 이상 사용하지 말고 모니터는 눈높이보다 10~20도 아래로 배치한다.

햇빛이 강한 곳에서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라__자외선은 각막염을 일으키고 백내장과도 연관이 있다. UV-A, UV-B 모두 99% 이상 차단하며, 가시광선도 75~90% 차단하는 제품을 착용해야 효과가 있으며, 멧을 내기 위해 지나치게 안경알 크기가 작은 제품을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6단계 눈 체조법

●●1단계. 안구 근육 스트레칭

1. 얼굴은 움직이지 않고, 눈동자만 상, 하, 좌, 우로 최대한 움직인다(5회).
2. 눈을 있는 힘을 다해 꼭 감았다가 5초 후에 뜬다(3회).
3. 시계방향과 시계반대방향으로 번갈아가며 눈동자를 천천히 원운동 시킨다(5회).
4. 눈을 가볍게 천천히 깜박거린다(10회).

●●2단계. 근육을 유연하게 풀어준다

1. 국민체조에서 하듯 목 운동을 해준다. 목을 뒤로, 밑으로, 좌로, 우로, 오른쪽으로 빙글 돌리고, 왼쪽으로 빙글 돌리기를 반복한다(5회).
2. 국민체조에서 하듯 어깨운동을 앞으로 4바퀴, 뒤로 4바퀴 해준다(5회).
3. 국민체조에서 하듯 허리운동을 해준다(5회).

●●3단계. 눈 운동

1. 눈동자를 상하좌우로 움직이고 원운동을 좌로 한 바퀴 우로 한바퀴 돌린다(5회).
2. 1m 이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고 2~3초 보다가 10미터 이상 멀리 있는 물체에 초점을 2~3초 맞춘다(5회).

●●4단계. 멀리보기

한 곳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2~3분 정도 10m 이상 먼 곳을 본다. 잘 보이지 않는다면 가능한 큰 물체를 본다. 자세히 볼 필요는 없으므로 알아볼 수 있는 물체를 보기만 하면 된다.

●●5단계. 1번의 안구스트레칭을 반복한다.

●●6단계. 2번의 근육 풀기를 반복한다.

조화로운 발전을 꿈꾸는 상생(相生)의 땅, 의정부



의정부는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보면 중심부에 위치해 있지만 분단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남한의 전방에 속하게 된 역사의 아이러니를 간직한 곳이다. 의정부는 현재 한반도의 중앙부라는 자부심을 갖고 첨단산업과 청정자연이 어우러진 조화의 고장이라는 비전 아래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그 도약의 물결 속에서 서로 상생하는 (주)헤인 북부영업소와 천암 R.C.S의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천암 R.C.S 김기표 사장(왼쪽)과
(주)헤인 북부영업소 문제운 소장(오른쪽)



팀워크로 뚫돌 뭉친 영업전사들

상대적으로 수도권 내 낙후지역으로 여겨졌던 경기북부가 산업시설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심지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2,000억원 지원을 약속하며 북부개발 청사진을 제시한 터라 이곳의 분위기는 한껏 고무적이다.

개발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법. 더욱이 신도시 개발계획으로 골재생산 및 건설폐기물 업체가 호황을 예견하면서 (주)헤인 북부영업소의 발걸음 역시 바빠지고 있다.

의정부, 양주, 포천 등 경기북부 일대를 담당하는 북부영업소는 골재생산, 건설폐기물, 레미콘, 아스콘 업체를 대상으로 한 꾸준한 영업으로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북부영업소는 말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돕는 것을 우선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타 영업소보다 돈독한 팀워크가 바로 북부영업소의 영업 전략

입니다”라며 북부영업소 문제운 소장은 북부영업소만의 남다른 팀워크를 강조했다. 그도 그럴 것이 총 6명의 인원이 뚫돌 뭉쳐 고객 만족이라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하고 있으니 눈빛만 봐도 직원들의 기분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라.

북부영업소의 업무 전반을 총괄 지휘하는 문제운 소장 과 장비판매를 전담하는 송남희 과장은 고객들의 성향에 맞춘 세심한 영업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150% 이상 올리고 있다.

또한 부품업무를 담당하는 임봉남 대리는 부품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함께 고객관리의 귀재로 정평이 나 있으며 여기에 안미숙 대리의 꼼꼼한 업무 능력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객의 목소리에 하나라도 더 귀를 기울이며 숨 가쁘게 뛰고 있는 노주일 A/S 주임과 김준철 사원 모두 북부영업소의 성공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순환모래 제조 현장에서 맹렬히 가동중인 345BL 굴삭기

15년째 이어온 천암 R.C.S와의 인연

팀워크가 아무리 뛰어나도 철저한 사후 관리 없이는 재고객을 창출하기 어려운 법. 그러나 북부영업소는 ‘헤인과 한번 거래를 맺으면 평생 거래를 지속한다’는 고객 평가를 이끌어 낼 만큼 완벽한 관리시스템인 ‘Product Support’를 통해 한번 맺은 고객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북부영업소의 주요 고객 중 순환모래 제조 전문회사인 천암 R.C.S와의 인연은 남다르다.

천암 R.C.S의 모기업은 천암기업. 부산모래 전문제조 기업으로 15년 동안 국내 굵직한 공사들 대부분이 천암기업의 모래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천암기업은 부산모래생산의 노하우를 살려, 지난 2004년 건설폐자재를 양질의 순환모래로 탈바꿈시키는 순환모래 전문회사인 천암 R.C.S로 사업 확장을 했다. 바로 수도권 매립지 가득 쌓여있는 건설폐자재를 순환모래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 것. 이를 위해 천암 R.C.S는 김기표 사장이 직접 설계한 ‘재활용 골재를 이용한 순환모래 생산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재

맹렬히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정부의 신도시 설립 계획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들을 철거해야겠지요? 순환모래는 철거할 때 나오는 건설폐자재에서 나무, 못, 스티로폴 등을 제거하고 그 중 순수 콘크리트만 분리해서 만드는 모래입니다. 건설폐자재에서 이물질 제거하는 기술력이 관건인데, 현재 이물질 99% 제거라는 성과를 이뤄내 순환모래에 대한 제품력은 제가 맹세할 수 있습니다”라며 김기표 사장은 순환모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개발에 따른 부산물로 점차 늘어나는 건설폐기물을 가공해 순환골재를 만들고 천연골재의 채취로 인한 자연파괴를 감소시키는 일거양득의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어 순환모래에 대한 천암 R.C.S의 자신감과 자부심은 남다르다.

“처음에는 순환모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던 레미콘 등의 업체들도 저희 제품을 사용한 후에는 순환모래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남들이 무모하다고 말하는 이 일에 뛰어난 노력을 보상받은 거 같아 무척 기뻐했습니다”라며 김 사장은 감격의 순간을 회고했다.

헤인 제품력에 31년 건설 외곽수도 감동

천암 R.C.S 김 사장은 헤인의 우수한 제품력에 대해 할말이 많은 듯했다.

“모래 제조과정 특성상 중량물을 이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굴삭기, 로더와 같은 중장비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오랜 시간 이 일을 하면서 아마 제 손을 거치지 않은 장비가 없을 겁니다. 이 회사, 저 회사 제품을 많이 써봤지만 캐터필라 만한 장비가 없더군요.”

31년간 건설업에 종사한 만큼 여러 업체의 장비를 써봤으나 다른 장비들은 잦은 고장으로 종합병원을 방불케 했다고.

“타 업체들은 제품을 판매한 뒤 고장으로 A/S를 신청해도 제때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잦은 장비 고장으로 공사가 중단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פת하면 고장 나는 장비를 때문에 숙을 끓이던 김기표 사장은 헤인 장비를 쓰면서 이와 같은 고민을 해소하

게 되었다고. 그 후 로더 6대, 굴삭기 3대 등 현재 총 9대의 캐터필라 장비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 두 달 차이로 같은 기종의 장비를 헤인 제품과 타 회사 제품으로 동시에 구입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성능이 비슷하다가 6개월이 지나니까 차이가 확 났더군요. 그때 알았죠, 겉보기는 비슷해도 내구성에서 차이가 크다는 것을. 그 이후로는 11년째 A/S도 잘되고 튼튼한 헤인 장비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1년간 건설 일만 열심히 해온 저와 제품력으로 승부하는 헤인의 기업 이미지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환경도 지키고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골재난도 해결할 수 있는 야심찬 프로젝트의 현장에는 어김없이 캐터필라 굴삭기와 로더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산업사회에서 한번 인연을 맺은 고객과의 상생을 이루는 헤인과 천암 R.C.S의 모습에서 적지 않은 감동이 밀려왔다.

글. 손원주, 사진. 이승혁

Tip 의정부에 가면

대장금 테마파크



의정부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대장금 테마파크는 MBC 드라마 〈대장금〉을 촬영세트장으로 아시아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2005년 11월 개장한 곳이다. 대장금 테마파크는 수라간, 소주방, 퇴선간, 객사 등 옛 우리 조상들의 숨결과 함께 〈대장금〉 촬영당시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 의정부의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촬영 당시의 소도구와 의상에 곁들여 명장면 하이라이트, 연출자의 역사이야기, 한복려 원장의 궁중음식이야기 등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가마타기, 투호놀이, 곤장 맞기, 활시위 당겨보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와 체험코너가 마련돼 있다.

겨울철 보양식, 영양돌솥밥



의정부와 양주시, 교외선 기차역 부근에 가면 ‘제대로’ 영양돌솥밥을 하는 밥집을 쉽게 볼 수 있다. 의정부 일대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양주미를 돌솥에 얹고 청정 지하 약수를 붓고 밤, 대추, 은행을 같이 얹어 보글보글 끓이면 반찬이 따로 없는 영양돌솥밥이 탄생한다. 맛은 물론이고 영양까지 풍부해 추운 날, 속을 덥혀주는 겨울 보양식으로 ‘딱’이다. 여기에 김장김치와 구수한 된장찌개까지 곁들여져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을 만큼 일품인 맛을 느낄 수 있다.

종합물류업계의 뿌리 깊은 나무 (주)한진



사람이 한결 같기란, 강산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좋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 또한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16년 가까이 (주)헤인 광주지점과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주)한진은 한결같은 모습을 간직한 '뿌리 깊은 나무'로 제 자리를 지켜가고 있었다.

(주)헤인 조정근 과장(왼쪽)과 (주)한진 광양지점 정비팀 장성백 팀장(오른쪽)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

항만하역사업, 육운(陸運), 해운(海運), 공운(空運) 등 하늘과 땅, 바다를 넘나들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주)한진은 물류 흐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종합물류회사다. (주)한진에게 있어 2005년은 1945년 창립 이래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기도 했다. 지금의 한진그룹이 형성되기까지 그 모체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주)한진이니 그 깊은 역사 속에서 (주)한진과 함께 해온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어찌 설레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비의 1인자'라 불리는 강성백 팀장은 기계 정비에 있어서만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다.

80년도에 입사한 그는 정비 실력을 인정받아 한진고속 정비공장의 정비 팀장으로, (주)한진 본사로, 포항으로, 부산으로 수없이 많은 곳을 오고 갔다. 25년 베테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았던 것. 지금은 (주)한진 광양지점의 정비팀장으로 포스코의 원료하역작업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들이 그의 손을 거쳐 갔다. 직접 기계를 수리하다보니 사용하고 있는 캐터필라 불도우저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현재 (주)한진에서 보유하고 있는 캐터필라 장비는 D6R II XW TWD를 비롯하여 총 14대.

"기전데 왜 고장이 없겠어요. 고장 때문에 수리하느라 고생한 적도 많죠. 무슨 일이든 인간관계가 첫째겠지만, 일에 있어서만큼은 기술적으로 장비가 좋은 게 우선이죠. 그 다음이 인간관계고요. 그래도 타 업체와 달리 한진과 헤인이 오랜 시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품질로, 인간성으로 다져온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한진은 지난 11월에 투웨이형 캐터필라 불도우저 D6R II XW TWD 3대를 헤인으로부터 구매했다. 장비 교체 연한이 도래한 것도 있었지만, 헤인에 대한 믿음도 구매 결정에 한몫 했다.

몸도 마음도 24시간 풀가동

(주)한진에서 맡고 있는 원료하역작업은 광양지점 200여 명의 직원 중 60명이 투입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 쉬는 날, 명절도 없이 1년

365일을 28명의 현장 직원들이 주,야로 나뉘어 교대근무를 하면서 24시간 풀가동 된다. 호주, 브라질, 러시아, 중국, 캐나다 등 각 나라에서 각종 철광석 원료를 실은 25만 톤급의 배가 광양 만에 입항한다. 선체 길이가 300M나 되는 대형 선박 안에 들어가면 깊이가 18M, 가로×세로 폭이 12M~20M정도 되는 공간에 원료가 들어차 있다. 이 원료를 타워크레인 형태의 언로더가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려 하역작업을 시작하면 마지막 단계에 캐터필라 불도우저가 투입돼 배 벽 쪽에 붙어있는 원료들을 하역하기 좋게 가운데로 몰아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언로더가 어느 정도 하역작업을 마칠 때 까지 시간이 있긴 하지만, 언제 어느 때 투입될지 모르기에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 25만 톤급 배의 경우 3박 4일 정도 하역작업에 들어가는데 하루에 하역해야 하는 기준이 2만 톤.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찍 하역작업을 마치게 되면 선박회사로부터 조출료를 받고, 시간이 초과됐을 때는 반대로 선박회사에 체선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한마디로 시간이 돈인 셈. 체선료의 경우, 조출료의 두 배로 지불해야 하기에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기계의 문제는 바로 (주)한진의 이익과도 직결된다. "(주)한진은 쉬는 날이 없어요. 포스코 내에 있는 다섯 개 고로(高爐)에 불이 꺼지지 않는 한 풀 가동하는 것엔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신경이 많이 쓰이죠. 아무래도 직접 정비를 담당하는 강성백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오랜 시간 한진과의 돈독한 연을 이어온 조정근 과장이 말을 건넨다. (주)한진 식구들은 조정근 과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반대로, 조정근 과장이 모르는 한진 식구 또한 없을 정도다. '한진의 준 사원'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서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친한 관계이다 보니 때로는 실례를 범할 때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웃음으로 넘긴다. 제품을 사고파는 단순한 거래를 떠나, 서로의 마음을 얻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함께 나아가는 (주)한진과 헤인. 각박한 세상살이에 서로에 대한 '믿음'만큼 절실한 것이 또 있을까. 이처럼 좋은 관계를 회사가 나이 들어가는 것만큼 꾸준히 이어가길 바래본다.

글. 이자연(자유기고가), 사진. 이승혁

헤인과 백석공영의 든든한 파트너십

거대한 것은 그 크기와 무게감만으로 위압감을 준다. 백석공영이 자리한 서울 강남구 세곡동 입구에는 육중한 덤프트럭이 쉴 틈 없이 오가며 골재를 저 나르고 있다. 덤프트럭이 나르는 골재들은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연상 시키기라도 하듯 여기저기에 작은 언덕배기를 만들었다. 시끄러운 기계음, 뿌연게 흩날리는 먼지 사이로 노란색을 뽐내며 현장을 누비고 있는 헤인의 캐터필라 휠로더가 눈에 들어왔다.



좌측부터 (주)헤인 고객센터원본부 이민희 과장과 백석공영 최성호 과장, (주)헤인 고객센터원본부 김수열 대리

최성호 과장은 캐터필라 마니아

“헤인의 캐터필라는 수리를 한 번 해 놓으면 2년 정도는 무난하게 사용합니다. 반면, 국산 장비는 수리를 하고도 5~6개월이면 다시 고장이 나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명품의 진가겠죠. 일하는 사람으로서 가격 차이가 좀 나더라도 좋은 제품을 사용해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으니까요.”

1988년 백석공영의 시작과 함께 일해 온 최성호 과장의 말이다. 백석공영의 첫 파트너는 국내 업체의 장비들이었다. 고장이 잦아 고민하던 끝에 헤인의 캐터필라로 교체를 하게 된 것. 백석공영의 역사가 18년인 것을 감안한다면 헤인과의 인연은 무려 15년째에 접어드는 셈이다. 지금까지 꾸준히 인연을 맺어온 것 또한 순전히 캐터필라의 품질 때문이라고 최성호 과장이 말을 잇는다.

현재 백석공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캐터필라 휠로더 980C 3대와 988B 1대를 포함해 총 4대. 15년 이상된 장비들이라 보니 백석공영과 함께 나이를 먹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 2대의 캐터필라는 79년식 장비임에도 위풍당당하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현장을 누비고 있다. 제품도 제품이지만, 사용자와 관리자의 철저한 장비관리가 엮이는 부분이다. 지하철 터널이나 건설현장 등의 골재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분쇄기인 크러셔에 넣어 용도에 맞게 자갈이며, 모래 등을 재생산하는 백석공영은 수도권에 있는 레미콘 회사에 골재를 납품한다. 지역적으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용이한 강남구에 자리하고 있어 매출이 꾸준한 편이다. 일의 강도가 높고 작업 현장이 전부 노출된 곳이다 보니 현장 직원들은 안전사고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운다. 최성호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함께 길을 걷어가는 동반자

최성호 과장의 얼굴에선 일에 대한 열정이 그대로 묻어난다. 웬만한 장비는 손수 운전할 정도에 장비 수리며 현장 총괄 담당까지 멀티플레이어로서 자신의 역할에 몇 사람 몫을 더하고 있다는 헤인 김수열 대리의 말에 칭찬이 몇쪽은 지어낸다.

“사람들이 제 첫인상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시간이 지나면 그 속을 아는데 말이죠.”

최성호 과장의 말에 김수열 대리가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다. “누가 그래요. 전혀 안 그러세요. 과장님은 항상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요구 하실 건 요구 하시는 스타일이셔서 오히려 같이 일하기가 편합니다. 제가 볼 때는 화끈한 과장님 성격하고 지금 하시는 일이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8년간의 세월이 대화 속에서 묻어난다. 최성호 과장은 지난 7월에 헤인 천안공장에서의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열린 ‘Cat Care Meeting’에 참석했다. ‘Cat Care Meeting’은 말 그대로 고객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표현으로 고객을 지원하고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취지로 헤인에서 마련한 자리. 현장에서 담당자와 1:1로 만나는 일이라 비밀비재하지만, 이렇게 관련 업체 사람들과 헤인 관계자들이 함께 한 자리는 최성호 과장도 처음이었다. 자신이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담을 통해 장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서로가 가진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무엇보다 헤인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간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기에 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그는 앞으로도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서 Cat Care Meeting이 지속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제가 생각하는 헤인은 편하다는 거예요. 상대를 어렵게 생각하면 하고 싶은 말도 꼭 참게 되는데, ‘헤인’ 하면 파트너, 동반자란 생각이 먼저 들어서 얘기하기가 편해요. 지금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최성호 과장과 김수열 대리가 손을 맞잡고 서로에게 가졌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굳게 잡은 손처럼 서로에 대한 신뢰도 더욱 돈독해지는 느낌이다.

짝이 되어 함께 가는 사람이란 의미의 ‘동반자.’ 그 깊은 의미만큼이나 아름다운 단어라는 생각이 든다. 믿음이라는 단단한 토양 위에 함께 선 헤인과 백석공영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함께 가는 동반자임이 분명했다.

글. 이지연(자유기고가), 사진. 이승혁

2006년 사회간접투자 시장 전망 SOC

2006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 약간 둔화된 4%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세계 경제는 유가 상승과 자연 재해에도 불구하고 인도 및 중국 등 아시아 개도국의 높은 경제 성장, 미국 경제의 연착륙(Softlanding), 일본의 경제 회복에 힘입어 4.2~4.4%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세계 경제 성장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일본, 유럽의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어 4.1~4.3% 정도로 올해보다는 대략 0.1%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 성장은 높지 않지만, 사회간접투자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사회간접투자 시장 전망을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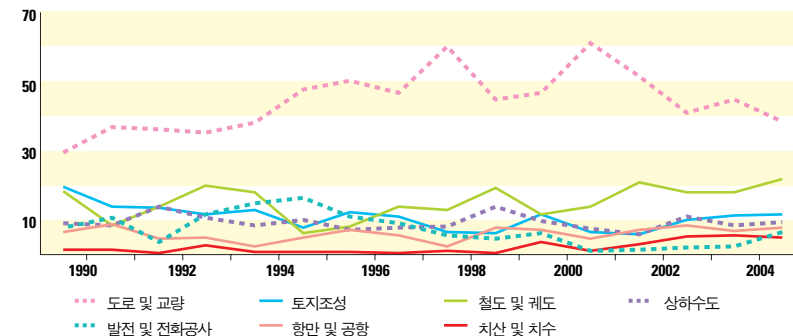
시장 위축 속에서도 성장은 지속

2006년 세계 경제의 성장세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 둔화로 수출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내 경제는 연초 예상과 달리 3.8% 성장에 머물 것이나, 내년에는 4.5~5% 성장으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소비는 그동안 소비 위축을 가져왔던 가계부채 조정이 마무리됨으로 해서 소비가 증가하면서 내수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건설투자는 8·31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 인한 2005년 하반기 이후 수주 감소 효과가 2006년 건설 투자 증가율을 낮추는 파급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2005년 하반기에는 경제 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정도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2006년에는 다소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건설 시장은 상반기까지 건설 수주가 상당한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겠지만, 연간으로는 2.57% 정도 증가한 97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발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 부문은 하반기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발주 증가와 공공 기관 발주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연간 34.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부문도 8·31 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 위축이 예상되지만, 상반기 호조에 힘입어 연간으로는 2.1% 증가한 62.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공사 유형별로는 토목 부문은 상반기 공공 발주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하반기 BTL(Build Transfer Lease) 발주로 연간 11.5%가 증가해 35.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건축 부문은 상반기에는 호조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 침체로 돌아서 연간으로 1.97% 정도 감소해 6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 부문 중 주거 부문은 상반기 30.2% 증가에서 하반기 21.9% 정도 감소하여 연간으로는 2.8% 정도 증가하여 36.7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비주거 부문도 상반기까지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 8.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24.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공공 토목 부문별 비중 변화



공공 건설 수주는 소폭 증가, 민간은 감소

2006년 건설 수주는 전체적으로 공공 부문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택 사업의 위축으로 올해에 비해 5.1% 정도 감소한 92.1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공 수주는 SOC 투자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공 기관 발주 증가 등으로 올해에 비해 9.5% 정도 증가해 연간으로는 38.2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거시 경제는 올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수 부족과 정부 예산의 복지, R&D 투자를 확대하고 SOC 재정 투자는 감소해 공공 토목 부문이 다소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 이외의 공공 투자 사업을 확대해 공공 건축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수주는 민간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시장의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올해에 비해 13.2% 정도 감소한 53.9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시장은 8·31 부동산 대책이 올해 입법화 과정을 거쳐 2006년부터 실시되고, 금리도 상승 추세에 있어서 신규 분양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민간 부문 위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8·3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2006년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민간 주택 수주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주거 부문은 2006년 거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회복세가 미약하고, 8·31 부동산 종합 대책 이후 내년부터 기반시설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제 시행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여 상업 시설 신규 분양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 지원의 SOC 재정 투자 증가

2006년 토목 수주는 SOC 투자 예산은 감소하나, BTL 사업 중 토목 부문 증가로 올해에 비해 0.14% 증가해 35.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즉 정부의 직접적인 SOC 예산 투자는 감소하겠지만 BTL 발주, 지자체 및 공기업의 자체 사업 증가 등으로 인하여 0.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 수주는 민간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의 주거 및 비주거 수주가 늘어나 올해 보다 8.1% 감소한 56.16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토목 공사는 중장기적으로 그동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도로 교량 부문은 90년대 말 이후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고, 철도 궤도 및 발전 전하 공사 부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 조성 공사의 경우에는 90년대에 들어 점차 하향 추세를 보였으나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 2006년 및 중장기적인 공공 부문의 투자 내역과 함께 공공 개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006년은 SOC 투자 예산은 감소하지만, 재정 투자 이외의 공공 건설 물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공공과 연관된 총투자는 올해에 비해 10% 정도 증가한 53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06년 건설교통부 등 SOC 재정 투자 예산은 올해 16조원에

서 내년에는 15조 5,000억원으로 3.1%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SOC 재정 투자는 주로 건설교통부의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공사, 수자원 공사를 비롯하여 해양수산부의 항만 공사, 행정자치부 지방도로 공사, 재정부의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공사 등에 투입될 예정되어 있다.

반면에 국고에서 지원되는 SOC 이외의 건설 관련 재정 투자 사업은 올해 18조 4,000억원에서 내년에 19조 4,000억원으로 5.8% 증가한다. 여기에는 국방부의 내무반 등 병영 기본 시설, 정통부의 우체국 청사, 문화부의 도서관 건립, 복지부의 노인 복지 시설 건립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국민임대주택 사업과 함께 지방비로 투자되는 지자체의 건설 투자 사업 등이 있다. 재정 투자 이외의 기타 건설 투자로 BTL 등 민자 사업과 공공 기관 건설 투자가 올해 13.6조원에서 내년에 18.6조원으로 33.1%가 증가한다. BTL 사업으로는 교육부의 초등학교 신·개축, 국방부의 군인아파트, 사병 내무반, 환경부의 노후 하수관거 정비와 함께 민자 유치 사업으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해수부의 부산신항만 건설 등이 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 인천공항공사의 인천 공항 2단계 공사,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건설 물량이 있다.

2007년 이후 대규모 공사 본격적 증가

이러한 공공 투자 이외에도 토목 건설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8·31 부동산 종합 대책이후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판교 및 과주신도시 사업과 함께 아산신도시 1,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김포 및 옥정신도시 면적 확대 등도 토목사업 수주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택지 개발 사업 외에도 각 지자체의 혁신도시 선정 및 개발, 기업도시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에도 SOC 투자 이외의 공공 투자자금을 확대하여 토목 사업 부문이 꾸준히 증가하겠지만 2007년부터는 토목 부문의 성장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복합중심도시의 경우에는 2006년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07년부터는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혁신 및 기업 도시들도

2007년부터는 공사에 착수하면서 앞으로의 사회간접투자 시장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기회의 땅 사회간접투자 시장을 전략적으로 파고 들 기업들의 대응 방안이 기대된다.

글. 김선덕(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불가능은 없다! Titan3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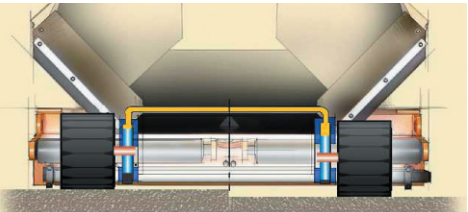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전국 도로 포장율이 80%를 육박하고 도로 총 연장도 10만Km에 달한다. 매년 새로운 고속도로와 국도 등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전 이미 포장한 도로에 대한 보수작업도 새로운 도로 만큼이나 많은 도로들을 보수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보수작업에 발 맞추어 빠르게 변하는 우리나라의 작업환경과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로포장장비가 Titan3870이다. Titan3870에 대해 알아본다.

글: IR장비영업팀 장양명 대리 (ymjang@haein.com)

조용하고 깨끗한 친환경 엔진

99마력의 4기통 커민스 디젤 엔진(4BT4.5-C99)을 탑재하여 기존 6기통 엔진에도 손색없이 장비에 넉넉한 힘을 실어주면서도 적은 연료 소모량으로 장비의 운영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유럽과 미국의 엄격한 배기가스 배출규제와 소음규제에 적합한 엔진으로 환경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한다.

트랙형을 닮은 휠형 언더캐리지



많은 중장비들이 트랙형을 선호하는 이유는 접지력 혹은 견인력이기 때문이다. 또한 휠형의 액슬(Axle)은 노면이 고르지 않은 경우에 바퀴의 접지면이 노면에 골고루 접지되지 않는 단점이 있으며, 트랙형에서는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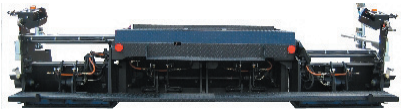
노면과의 슬립(Slip)현상이 일어나 포장면의 평탄성이 저하되곤 한다. 이런 휠형의 단점들은 Titan3870에서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뒤쪽의 드라이브 휠(Drive Wheel)에는 'ASC(Anti Slip Control)'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구동바퀴가 미끄러지거나 헛도는 것을 방지하여 접지력을 보장하며, 앞쪽 바퀴에는 일반 자동차와 같은 액슬형 서스펜션(Axle Suspension)이 아닌 잉가솔랜드 특허의 피스톤형 서스펜션(Piston Suspension)이 적용되어 바퀴의 접지면이 노면에 고루 접지되도록 하여 바퀴의 편마모를 줄이고 장비의 수명을 유지한다. 또한 호퍼 안 포설물의 위치에 따라 각각의 바퀴에 다른 하중을 받음으로써 생기는 토크의 차이를 압력 센서를 설치하여 하중에 따른 토크를 제어(Load Controlled Torque)함으로써 언제나 직진 주행이 가능하게 한다.

작고 단단한 VB50 스크리드

국내 도로 여건을 생각해보면 편도 2차선도 되지 않는 좁은 골목길들이 많다. VB50 스크리드는 이런 도로 여건에 맞추어 최소 포장 폭이 2미터로 좁은 골목길이나



모퉁이의 코너링으로 인한 작업 중단 없이 부드럽게 연속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최대 포장 폭 5미터의 스크리드는 Titan3870이 단지 골목길 포장만을 위한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탬퍼(Tamper)와 바이브레이션(Vibration) 두 가지 모두 다 장착되어 있어 최상의 포장면을 생산해 내고 있다.



작업자 중심의 플랫폼(Platform)

최고의 포장 작업을 위해서는 운전자가 편안하게 앉아 장비의 모든 것을 제어하고 쉽게 정비할 수 있어야 한다. 슬라이딩 방식의 컨트롤 패널(Control Panel)은 좌우로 쉽게 움직여 운전자가 어느 방향에서라도 편안하게 작업을 하며, 장비를 제어하는 모든 기능들이 컨트롤 패널에 집중되어 있어 한눈에 장비의 상태와 제어를 확인할 수 있다.

요즘 작업 현장을 보면 짧은 작업 구간과 촉박한 공기

그리고 같은 공사 구간이라도 작업현장을 자주 옮겨야 하는 형태가 많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포장 작업 보다는 장비의 상하 차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근거리 작업 현장은 트랙형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스스로 이동하여 바로 작업에 투입이 가능한 휠형 피니셔는 앞으로 도심 포장 작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비가 될 것이며, 그 중심에 Titan 3870이 서 있을 것이다.

Titan3870의 기본 제원

정격출력	99hp@2200rpm
연료탱크	108리터
포장속도	18m/min
이동속도	18km/h
호퍼용량	12톤
포장 폭	최소 2.0m / 최대 5.0m
포장두께	최대 30cm
운전중량	12.2톤



(주)헤인 '일반광원대화 기술세미나' 참여

(주)헤인 정비사업본부에서는 동해/제천지점과 공동으로 지난 11월 24일 강원도 삼척시 동양시멘트(주) 기술교육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05 일반광원대화 기술세미나'에 참가하였다.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주관하고 한국광업협회가 후원하며, 전국의 일반광산업체가 대부분 참여하는 연례행사로 금년에는 예년보다 약 30~40% 많은 160명 가량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헤인은 공식 스폰서 자격으로 참가하여 '장비대형화의 경제적 효과'라는 제목의 주제발표 및 동해/제천 지점장 및 영업담당자가 참석하여 주요 광산 인사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캐터필라 C175 시리즈 엔진 출시

Caterpillar에서는 오는 2006년 2월에 미국 인디애나주의 Lafayette Large Engine Factory에서 C175 Series 엔진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Caterpillar 엔진 모델 중 2000KW이상의 고속엔진(1800RPM)의 부재로 고객들의 불만이 많았었지만 C175모델의 출시로 이 같은 고객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6년 2월에 출시되는 모델은 C175-16(2.75MW~3.0MW)이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C175-12, C175-20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2MW에서 4MW까지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C175엔진은 Caterpillar가 자랑하는 ACERT 기술을 이용하여 연료분사 시스템을 향상시켜 소비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배기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어 대기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호수중기정비, (주)헤인 지정서비스센터 인증

(주)헤인은 2005년 10월 17일 천안 고객지원본부 사무실에서 차길환 고객지원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호수중기정비를 '지정서비스센터'로 지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서비스센터 지정을 통하여 (주)헤인은 향후 대구/경북지역의 고객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정서비스센터'는 (주)헤인에서 각 업체의 서비스 능력 등 다양한 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센터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주)헤인의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나갈 예정이다.



Ingersoll-Rand ABG Titan 5820 출시

Ingersoll-Rand ABG Titan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설계된 Titan 5820을 출시하였다. Titan 5820은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기본 사양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옵션으로 선택하게끔 하여 장비 구매시 원치 않은 옵션들을 어쩔 수 없이 구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장비가격 상승의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도이치 엔진의 152마력은 200마력 이상의 엔진출력이 필요 없는 기본 확장 폭으로만 공사가 충분히 가능한 도로의 보수 공사 혹은 골목길 공사 등에 충분한 출력을 제공하며, 장비중량이 15.6톤 밖에 되지 않아 장비 운반뿐만 아니라, 연료소모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문의 : 장비 상담 이은구 과장 02)3498-4602

장양명 대리 02)3498-4603



(주)헤인 창립 제45주년 기념식 거행

(주)헤인은 창립 45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월 17일 헤인 양재동 사옥에서 창립기념행사를 거행하였다. 기념식은 장기근속자 포상 및 우수사원 시상 후 손규식 회장의 창립기념 축사로 이어졌으며, 손규식 회장은 축사에서 헤인 창립 45주년의 의미와 사업 전문화 및 지속적인 사업영역확장을 통해 국내 최고의 건설장비 종합서비스회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헤인의 중장기 Vision을 제시하고, 그 Vision 달성을 위한 실천 방안을 강조하였다.



6 Sigma Project - 2006 APD President's Award Best in District으로 선정

Caterpillar에서는 아시아 지역 딜러간의 6시그마 프로젝트를 활성화 시키고 6시그마 프로젝트의 Best Practice에 대한 타 딜러간의 공유 및 협력을 위해 매해 President's Award를 진행해 왔다. 헤인은 지난해에 이어 China District에서 Best in District 6시그마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으며, 이번에 선정된 6시그마 프로젝트는 경영기획본부 금융무역팀에서 지난 2004년 2월에 시작하여 2005년 10월에 종료된 부품/서비스 채권관리 프로젝트이다. 지난해에는 신장비도입(NPI) 6시그마 프로젝트가 Best in District에 선정된바 있다. 헤인에서는 2002년 8월부터 6시그마를 도입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웨이형 불도우저 D6R II XW, (주)한진에 공급

(주)헤인은 지난 11월 10일 (주)한진 광양, 포항 지점에 캐터필라 불도우저 D6R II XW TWD 3대를 공급하였다. 철광석, 석탄, 곡물 등 항만지역 작업 시 사용되는 투웨이형 불도우저는 크램셀 버켓이 달지 않는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전전후로 사용되며 작업환경을 감안하여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작되는 맞춤형 제작 형태의 장비이다. (주)한진은 금번 공급으로 인해 작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헤인은 양질의 제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TEREX/O&K Mining Excavator RH40-F 수주

(주)헤인의 Allied 정비사업본부는 지난 10월 25일 성신양회(주)로부터 TEREX/O&K Mining Excavator RH40-F(CAT C18 엔진 탑재) 1대를 수주했다. 이는 지난 4월 'TEREX/O&K'와의 국내독점 Dealership 계약 체결 이후 최초의 수주건을 성사시킨 것으로 그동안 (주)헤인이 국내 시멘트업체에 제공한 차별화된 'Product Supports'에서 기인한 신뢰 관계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주)헤인은 이 수주를 바탕으로 더욱더 차별화된 서비스와 신뢰성 있는 제품으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광산 장비 공급업체의 명성을 이어 나갈 것이다.

독자 나눔터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 헤인 캐터필라 제품의 '지게차'를 구입해서 사용 중인데 기존 사용하던 타사 제품보다 힘이 좋고 전체적인 제반 성능도 우수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품 계속 공급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기 광주시 회덕동 233-4 박현 님

안녕하세요. 저는 헤인 사보의 애독자입니다. 매년 알찬 기사(가을호 테마 특집 '밭'에 관한 기사)를 대할 때마다 생활의 지혜를 얻게 되고, 헤인이라는 회사에 대하여 더욱 잘 알게 되어 헤인의 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헤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충남 부여군 초촌면 삼거리 615 박삼일 님

비우는 일 없이 채우기만 하는 삶과 깨끗이 비우고 다시 채우는 삶은 질적인 차이가 있듯이 헤인 사원들께서도 무작정 채우기보다는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채우기 바랍니다. 헤인 파이팅!

경남 진해시 원포동 100번지 STX조선(주) 천욱재 님

앞으로도 헤인의 더 좋은 품질과 서비스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고객의 만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헤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헤인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충북 제천시 하소동 현대 HPARK 103동 1005호 노현대 님

헤인 사보를 통하여 또 하나의 계절이 지나갔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알찬 사보 잘 받아보았습니다. 언제나 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헤인이 되길 바라며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정안타운 건영 APT 108-1203호 박찬빈 님

엽서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첨되신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문의 : 이슬일 과장(silee@haein.com) 02-3498-4524

정보 및 보직 변경

CCE영업팀	팀장 최광수
제천지점	지점장 문제운
Allied Parts&Service	팀장 이유근
서울영업본부 북부영업소	소장 김남수
부품/서비스마케팅팀	팀장 이민희
6Sigma팀	팀장 송선미

자녀 출생을 축하합니다

대전지점	2005.9.10	주임 조정호
해상엔진팀	2005.9.20	대리 최문규
제천지점	2005.9.21	대리 박우양

결혼을 축하합니다

부산영업본부	2005.10.15	사원 손의정
영동포영업소	2005.11.06	사원 박혜숙
전산팀	2005.11.12	대리 서영준
금융무역팀	2005.11.13	대리 이견복
산업장비영업팀	2005.11.19	사원 강윤희
IR장비영업팀	2005.12.18	대리 장양명

지난호 그림맞히기 퀴즈 정답

2	1	3
4	8	6
5	9	7

아는 만큼 잡힌다, 세테크!

최근 각 은행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특판 금리가 봇물을 이루었다. 금융기관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예금을 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좀 더 높은 금리를 찾아 기본 좋은 예금 소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라도 더 높은 상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나가는 세금은 없는 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는 것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그럼 지금부터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1순위로 관심을 가져볼 인기 있는 절세상품을 살펴보자.

제일 먼저 가입해야 할 비과세 상품들

장기저축성 보험 ●●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른 비과세 상품과는 달리 금액에 제한이 없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고 싶은 거액 예금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다. 최근 들어서는 주식시장 상황에 힘입어 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변액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 ●●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소유자로서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한도는 분기별 3백만원으로 연간 최대 천 2백만원까지다. 7년이상 유지하면 전액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까지 가능하여 직장인들에게는 단연 1순위 가입상품이다. 최근 적립식펀드의 유행을 타고 확정금리형 저축보다 장기주택마련 펀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2006년부터는 1주택의 조건(2억원 이하)이 더욱 까다로워지므로 연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장기주식형 저축 ●● 8천만원 한도내에서 1년이상 주식형 펀드를 유지하면 비과세가 되지만, 아쉽게도 2005년 12월을 끝으로 내년부터는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게 된다.

생계형 저축 ●●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명의로 가입 시 상품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 상품과 소득공제형 상품

분리과세 상품은 흔히 세금우대 저축으로 알려져 있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일반세율 15.4%보다 낮은 9.5%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9.5% 세금 부담 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소득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분리과세 상품이라 부른다. 성인은 1인당 4천만원까지, 미성년자는 1500만원(2006년 폐지), 60세 이상 노인은 6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10년이상 장기채권 이자는 15.4%보다 높은 분리과세 세율 33%를 부담하고 납세의무를 종결시킬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최고세율 38.5%에 해당하는 거액 자산가들의 절세수단으로 흔히 사용된다.

비과세 상품에서 언급한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납입금액의 40%를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는 든든한 효자 상품이다. 연금저축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절세상품. 납입금액의 100%를 24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 우대세율 5.5%만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크다. 개인연금저축은 판매종료로 신규가입은 안되지만 추가불입액 40%를 최고 72만원까지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제는 꼼꼼한 절세전략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오늘 집안에 있는 통장을 모두 한번 꺼내보자. 혹시 아깝게 절세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 지 점검해보고 2006년 세테크 전략을 다시 만들어 보자.

글. 황재규(신한 Private Bank 세무사)



이 한 권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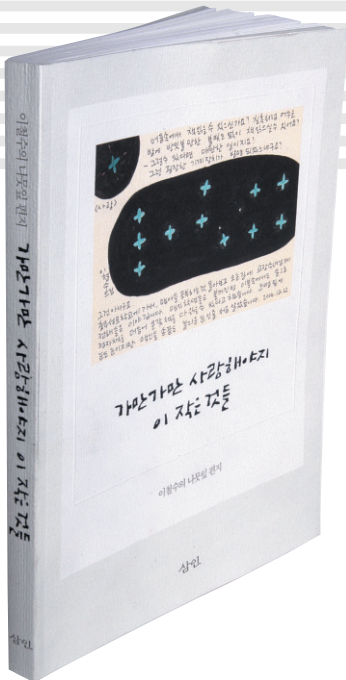
작고 소박한 일상에서 경이로움을 발견하다

〈가만가만 사랑해야지. 이 작은 것들〉

이 책은 '그림으로 시를 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시대 대표적인 판화가 이철수가 3년간 작업해온 190여 통의 엽서와 짧은 글 모음이다. 그의 엽서글 속에는 농부로서의 작가의 삶, 판화가로서의 흘린 땀, 그리고 소박한 시골 사람의 모습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얻은 사색이 그대로 담겨 있다.

대부분 짧은 편지글의 형식을 빌었지만 메시지만큼은 그의 판화만큼이나 깊은 내공을 담고 있다. 자연과 세상에 관한 그의 통찰은 우리에게 깨달음처럼 다가와 굳어버린 마음을 깨우고 작고 소박한 일상에서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일러준다. 깊어가는 겨울 밤, 어딘가 스산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글과 그림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

이철수 글 · 판화/심인 퍼냄



2 0 0 5

W I N T E R

우 편 엽 서

보 내 는 사 람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유효기간
2005.7.15~2007.7.14

서울시서초우체국
승인 제1823호

(주)헤인 사보편집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헤인빌딩

애 독 자 카 드

● 오른쪽 그림을 왼쪽 그림에 맞게 재배열해 보세요. 아래에 있는 빈 칸에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하여 적어 주세요.

2		



● 독자나눔터의 실고 싶은 사연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